

수 학 보 고 서

성 명	OOO	학과 / 학번	OOO/OOO
파견국가	일본	파견학교	오오츠마여자대학교
파견기간	2019 . 3 . 31 ~	2019 . 7 . 31	(총 4 개월)

1. 준비과정

-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의 준비내용

가고 싶은 나라와 학교를 찾아 인터넷등으로 정보를 얻고, 면접 준비를 함.

외국어 성적은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음.

- 파견학교 지원 과정

일본이라는 나라에 파견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자매학교 리스트를 확인한 후, 가고 싶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 홈페이지 등으로 학교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오오츠마여자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음.

- 파견국가 출국 준비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등)

학교에서 보내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주변 병원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음. 항공권과 환전은 가는 날짜에 맞춰 샅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장기간인 탓에 짐이 많아 EMS나 기숙사 주소 등 알아보는 것이 어려웠음. 비자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직접 주한 일본대사관에 가서 하는 것이 좀처럼 시간잡기가 어려웠음.

2. 파견학교

- 공항픽업 & 오리엔테이션

공항에서 픽업해서 공항을 떠나기 전에 미리 학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앞으로 자주 만나야하는 국제교류센터 담당자와 친분을 쌓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음. 국제교류센터 담당자인 아이다씨는 무척 친절하시고 꼼꼼하신 분으로 굉장히 든든했음.

오리엔테이션 역시 외국인인 우리들에게 맞춰주느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주셨고,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찾아본 뒤에 답변해주신 점이 굉장히 좋았음.

- 수업 & 학교활동

전체적으로 일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틈틈이 한일관계나, 역사, 일본의 문화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했음.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 대화를 하는 것이 일본어 능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라 생각해 수업시간에 일본인 학생을 초청해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음. 또한 수업시간 안에 학교 밖에서 체험형식으로 하는 강의를 있었는데, 관광으로는 가지 않을 곳,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데려가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

- 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시설

기숙사는 깨끗하고 넓었으며, 자판기, 헬스룸, 컴퓨터실, 도서관, 음악실, 노래방 등 편의시설도 많아 기숙사 내에서만 활동해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좋았다. 다만 더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게 쉼어룸으로 보내주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쉼어룸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음. (일본인의 특정상 사생활에 민감한 면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음.) 관리인분들도 친절하심. 밥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편임. 기숙사에서 매달 여러가지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 기숙사 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를 하거나, 만들기를 할 수 있음. 샤워실도 깨끗하고 대욕탕도 깨끗해서 사용하기 편리함. 세탁실에 세탁기가 많은 것은 좋지만, 그다지 깨끗하게 빨린다는 생각은 없고, 세탁기 위에 건조기는 굉장히 적은 양에 빨래만 가능해서 그다지 쓸모는 없음. 와이파이도 각층에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지만, 방까지 이어지는 것은 한정되어 있음.

3. 주변 환경

- 지역 정보

근처에 이치가야역이라는 역이 가까워 비교적 놀러다니기 편한 곳에 있으며,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큰 슈퍼가 있어 편리하다. 생각보다 기숙사에서 학교 가는 길이 걸어서 20~30분 정도 걸리고, 기숙사 가는 길에 언덕이 가팔라 힘들.

- 학교 주변 정보

한식 가게도 있고, 여러 나라의 음식점도 있어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학교 근처에 야스쿠니 신사가 있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음.

4. 비용

- 등록금(해당학생만)

명지대 등록금을 내고 다녀왔음.

- 기숙사 비용(학기당)

아침, 저녁 식사 포함 현지가격으로 5만6천엔에서 5만8천엔 사이.

- 추가비용(Books, Insurance, Etc.)

매학기 강의마다 달랐지만, 4권에 5천엔에서 7천엔사이

보험비 한달에 천6백엔 정도

- 생활비

네달 총합 비용 45만엔 정도(책값, JLPT시험값, 보험비, 통신비, 기숙사비 포함)

- 한달 평균 지출비용

4만4천엔에서 4만8천엔 사이

5.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생각보다 kpop에 흥미가 생겨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고, 한국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이었으며, 정치적으로 생각이 맞는 사람도 많았음. 한국에서 공부하고 갔던 일본사람들의 특징이 맞는 것도 있었지만, 많이 달랐던 것도 많아서 새로 알게 되었으며, 본인의 일본어 능력 중 가장 부족했던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음식 등에서는 확실히 맞지 않는 부분 또한 있었지만, 대다수 문화적인 것은 한국과 많이 닮아있었다. 기숙사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는 외국인 회사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국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빨리빨리가 일본은 굉장히 느리지만 꼼꼼하게이서 처음에는 많이 답답했지만 일본에서 지내면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진이나 험한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지진에 대비한 시설 덕분에 위험한 상황은 느낀 적이 없었고, 험한도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더욱이 일본에 있었을 때 한 일에 사이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환학생으로 온 우리들을 걱정하고 신경 써주어서 선생님들을 포함한 국제교류팀과 일본에서 사귀 친구들에게 무척 고맙게 느끼고 있다.

6. 사진 (학교시설 위주의 사진을 5장 이상 첨부해주세요)



본관 1층의 모습.



위에서 내려다 본 학생식당의 모습



수료식으로 사용된 세미나실



기숙사 방